

국민오락 '웃놀이' 국가문화재 된다



2020년 추석을 맞아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웃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민족의 우주관·천문관 바탕 음과 양, 천체 28수 등 형식 완결성 갖춰 당대 문화와 연계돼 전승 '의미'...문화재청 "학술연구로 활용도 높아"

명절이면 온 가족이 둘러 앉아 하는 전통 놀이가 있다. 가족뿐 아니라 친지들 친구들과 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일거리 삼아 하는 끝판 이 놀이를 한다.

바로 웃놀이다. 웃놀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해 내려온 우리의 전통놀이이다. 추석이나 설 때 뿐 아니라 연초부터 정월대보름까지 마을에서 웃을 놀기도 한다.

웃놀이는 단순히 운(運)에 기대는 운놀이라는 차원을 넘는다. 여기에는 경우의 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가변적이며 직관적인 특성이 담겨 있다. 4개의 웃가락을 던져 웃가락이 없어지거나 찢어진 상태에 따라 웃판의 말을 놀러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게임이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대표적인 전통 놀이인 웃놀이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26일 웃놀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 활용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는 의미다.

웃놀이는 우리 민족의 우주관과 천문관을 바탕으로 음과 양, 천체의 28수 등 형식의 완결성을 지닌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놀이 방식이 단순하다. 웃놀이와 유사한 판놀이(보드게임)가 있지만 놀이기구나 진행방식에 있어 웃놀이는 변별성을 지닌다.

웃놀이는 조선시대부터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다. 문헌에 따르면 김보표는 웃판의 상징과 말의 움직임을 매개로 '중경지'에 '사도설'을 기술했으며 이구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사회변증성'을 주장했다. 심익운은 웃판과 놀이 방법에 대해 기술한 '강천각소하록'의 '사회경'에서 기술하

고 있다.

무엇보다 웃놀이는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담고 있다.

웃가락의 가락웃·종지웃 등에 따른 지역적 분포, 웃판 없이 말로만 노는 건궁웃놀이 등 웃판의 다양한 형태 등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고정화된 놀이가 아닌 당대의 문화와 연계돼 새롭게 전승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늘날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통해 다양한 게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한 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인웃놀이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린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웃판의 형성과 웃가락 사위를 나타내는 '도·개·갈·웃·모'에 대한 상징성 등 학술연구로서 활용도가 높다"며 "가족 및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단절 없이 전승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등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위, 30일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예술위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해 참석하지 못하는 예술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원신청서 경력 및 활동의 제

한기간을 폐지했다. 임신, 출산, 육아, 병역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뿐 아니라 코로나 상황으로 예술 현장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 활동을 폭넓게 수용했다. 이를 위해 각 사업별 창작 과정 및 준비지원을 '창작의 과정'이라는 사업명으로 통합했으며 전년

기준 정시공모 1차, 2차, 별도공모로 나누어있던 공모시기도 일원화했다.

한편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신청접수는 10월 4일부터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위 홈페이지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정직한 후보2' 배우 김무열

“라미란과 코믹 앙상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춘 김무열(왼쪽)과 라미란.

도지사 비서실장 박희철 역 '진실의 주둥이'로 폭소 만발 "힘든 시기 영화가 위로되길"

“되게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이 캐릭터(박희철)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반갑고 기분 좋았죠.”

영화 '정직한 후보 2'로 돌아온 배우 김무열은 27일 서울 종로구 팔판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전편에 이어 주상숙(라미란 분)의 비서실장 박희철을 연기했다.

희철은 '정직한 후보 2'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인물이다. 상숙의 정계 은퇴와 함께 대리기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상숙이 강원도 지사에 당선되면서 다시 비서실장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나 강원도청에서 '도청밥 18년 차' 조태주(서현우)에 밀려 찬밥 신세가 되고 급기야 거짓말을 못 하게 되면서 위기에 빠지기까지 한다.

김무열은 “1편에서는 반응을 하는 '리액터'로서 역할 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코미디의 최전선에서 이끌어가기 했다”고 말했다.

“전편에서 함께한 분들에 대한 믿음, 즐거웠던 추억, 이 작품이 제게 갖는 의미는 제가 코미디 연기에 도전할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사회적 가면을 벗어 던졌지만, 말을 내뱉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부분을 표현하기가 진짜 어려웠죠. 미란 누나한테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웃음)”

'정직한 후보 2'는 상숙에 이어 희철까지 '진

실의 주둥이'를 얻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동안 참아왔던 상사 주상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은 이 작품의 또 다른 재미다.

“일단 박희철이라는 사람이 주상숙 의원을 오랫동안 보필하면서 느꼈을 감정과 속내가 궁금했어요. 감독님, 미란 누나와 같이 도출해낸 결론은 51%의 애정과 49%의 증오가 섞인 감정, 결과적으로는 애증이라고 봐요.”

김무열은 라미란과 함께 투톱으로 극을 끌어 나가기 된 소감을 묻자 “여전히 라미란 누나가 원톱인 작품이라 생각한다”며 겸손을 표했다. “박희철이라는 역할이 (전편보다) 도드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도 미란 누나를 믿고 이 작품에 참여했고, 촬영 내내 의지가 정말 많이 됐거든요.”

이어 주연으로 나선다는 부담감보다는 속편에 대한 걱정이 컸다고 고백했다.

“1편이 많은 분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더 재밌고 독보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비슷한 컨셉트와 장치 때문에 기시감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컸죠. 대본을 받은 날부터 촬영이 끝나는 날까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았어요.”

전편에 이어 호흡을 맞춘 라미란과 윤영호(봉만식 역)에게는 “두 분 모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만 현장에서 귀감이 되는 선배님들이라며 '같이 연기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감을 떠올리게 해주셨다. 믿을 만한 존재들이 딱 버려주셔서 기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요즘 코로나19부터 안 좋은 뉴스가 많고 힘든 시기잖아요. 이 영화로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잊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